



최근 가정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 책들의 출간이 많아졌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자아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원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부정적 자아상보다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서에서 행복한 가정의 근본원리를 찾은 《가정행전》과는 달리 《살아가는 지혜는 가정에서 배운다》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에서 가정을 올바르게 가꾸는 교범을 찾았다. 서로 믿는 마음(信), 사랑(愛)으로 하나되는 경(敬)의 마음이집과, 허욕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검소하고 겸허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내용. 이 책은 자녀교육에 중점을 두었는데, 자녀와 함께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는 창조적인 부모를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이 책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가치가 바로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 성원들이 자기를 닮고 서로 존경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윤재근 교수는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면 삶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같은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문제와 연관된다"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핵가족시대, 전통가족이 모델

자녀교육의 지침서는 이미 서점가의 단골 품목.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인성교육이 부각되자 EQ 학습법, 유태인식 자녀교육법이 붐을 이뤘던 것이 한 예다. 하지만 원칙만을 이야기하던 과거의 책과는 달리 요즘은 구체적인 사례와 경

험을 모은 책이 많다.

미국 교육학자인 바바라 유넬과 제리 위코프가 쓴 《내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20가지 미덕》(소담)과 어린이책 기획집단 우리누리가 지은 《아이의 행동에 고민하는 엄마를 위한 101가지 육아법》(전2권, 책이있는마을)은 '이럴 때는 어떻게'의 상담식 구성이라 실용적이다.

《내 아이에게...》는 이해심, 남을 돕는 마음, 공정함, 관용, 보살핌, 용기, 유머, 존경심, 충실함, 예의범절 등 자녀들이 갖춰야 할 덕목을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실었다. 예를 들어, 절제와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물건을 무조건 사주기보다 스스로 구입하도록 가족이 돕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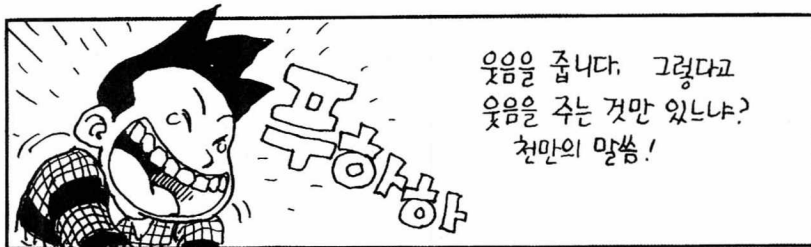
《아이의 행동에...》은 뭐든 사달라고 떼를 쓴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밥먹기를 싫어하고 갑자기 대소변을 못가리는 등 어린이들에게 흔히 있는 이상행동 101가지를 뽑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소개했다.

가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책의 출간은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실학사에서 곧 출간될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는 조선을 주름잡았던 문인들을 길러낸 어머니들의 자녀교육법을 다루고, 솔출판사에서 펴낸 중국 유명가문의 가훈을 모은 《아들과 딸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관계자들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을 가르쳐 온 전통사회가 핵가족시대인 현대사회의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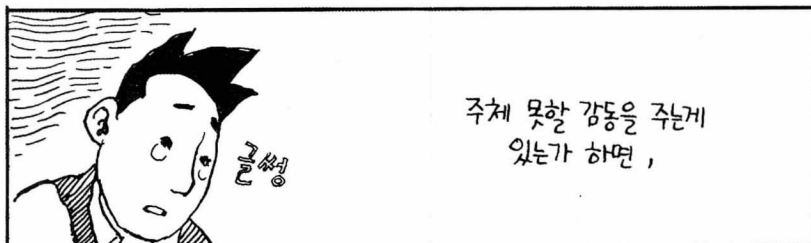
— 이현주 기자

## 차분과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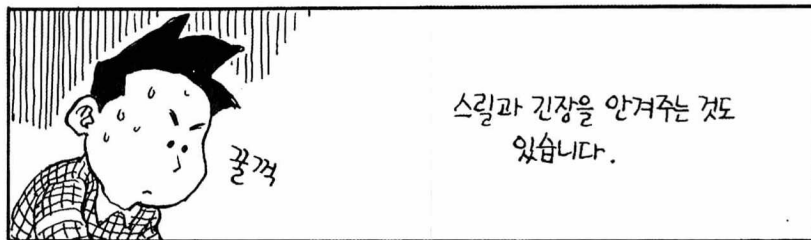
박 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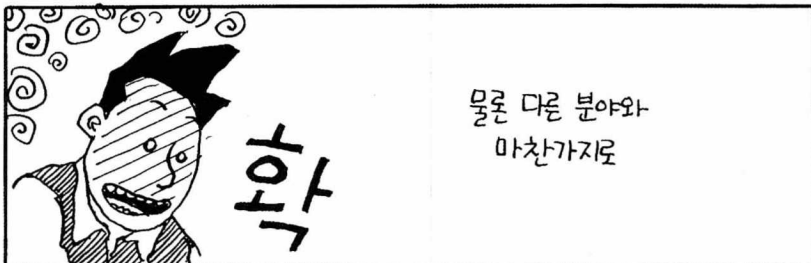
웃음을 줍니다. 그렇다고 웃음을 주는 것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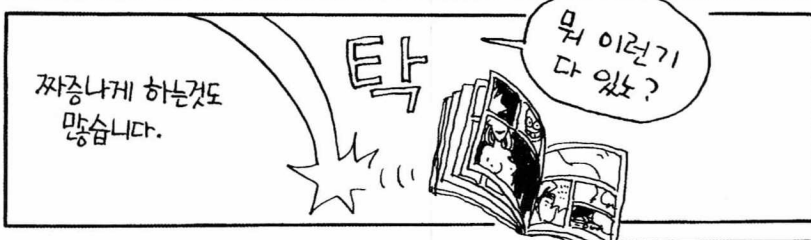
주체 못할 감동을 주게 있는가 하면,



스릴과 긴장을 안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짜증나게 하는것도 많습니다.

뭐 이런기 다 있노?



우리집에서 만화책은 당당히 책꽂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꽂힌 다른 책들도 좀 보시지

히...